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해야 할까요?

참가자 사전 학습 자료 요약본

토론회 개요

일시 2026. 7. 26.(일) 10:00 ~ 18:00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주최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토론회 한눈에 보기

‘모두의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으로, 논의가 필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번 논의는 광화문에 걸린 한자 현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한글 현판을 하나 더 다는 ‘병기’ 방안을 다룹니다.

광화문은 두 성격을 함께 지닙니다. ① 조선시대부터 나라를 대표해 온 국가 상징이자 시민의 공간이며, ② 1963년 사적으로 지정돼 원형유지가 원칙인 문화유산입니다. 현판을 바꾸려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현 한자 현판도 2023년 고증을 거쳐 새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문화유산을 어디까지 원형대로 지킬 것인가, 국가 대표 공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물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주요 의견

큰 질문은 “광화문 현판, 한글을 병기해야 할까?”이며, 그 아래 세 물음으로 나뉩니다. 각 쟁점은 찬반 둘로만 갈리지 않고, 그 사이에 여러 시각과 절충안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쟁점 ① 광화문을 어떤 공간으로 볼 것인가

- **보존의 입장** : 경복궁 정문인 문화유산으로 보아 원형을 지켜야 한다.
- **상징의 입장** :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이자 시민의 공간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 **함께 걸린 물음** : 논의 범위를 광화문 문루로 한정할지, 광장·세종로까지 넓힐지도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쟁점 ② 한글이 지닌 상징성을 광화문 현판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 **담자는 입장** : 경복궁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공간이므로 그 상징성을 현판에 담자.
- **신중한 입장** : 한글의 가치는 인정하되 기존 한자 현판이 지닌 역사적 의미도 함께 존중하자.
- **핵심 문제** : ‘한글은 소중하다’와 ‘한글 현판을 달자’가 같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가 갈림길이다.

쟁점 ③ 문화유산 보존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가

- **훼손이라는 입장** : 한글 현판 추가는 원형·진정성을 훼손하며 2023년 고증과도 배치된다.
- **계승이라는 입장** : 한글 현판 추가는 시대의 가치를 더해 ‘살아 있는 유산’으로 이어가는 일이다.
- **중도·대안** : 현판을 물리적으로 더하는 대신 디지털·조명으로 표현하거나, 한글날 등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안, 경복궁에 들어갈 때는 한자로(문화유산 측면), 나올 때는 한글로(광장을 바라보는 방향) 하자는 제안도 있다.